

날 세상의 식대로 표현한다면 말그대로 무척 팔자가 센사람일것이다. 그것도 그냥 센것이 아니라 “억수로”라는 표현처럼 말이다. 아니면 어떻게 영화나 소설속에서나 있을까 말까한 상황속의 사람들을 하루에도 몇명씩 만나 그들의 뜨거운 눈물과 회한과 절망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인생일까? 어제도 찢어지는듯한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돌아가신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떠올리며 문득 화장대 앞에 비친 내얼굴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떤때는 피상담자의 기가막힌 사연을 듣고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서는 …” 이라는 생각으로 몇날며칠을 치를 떨고 있는 나를 보게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기가 막지난 아들이 사귀어 데리고 들어온 철없이 담배만 피워대는 여자아이를 며느리로 맞게되고 그 철없는 며느리를 한국에 있는 집까지 팔아 간호대학까지 보내 버젓한 자격증을 갖춘 간호원을 만들어놓은후 아이를 낳고 살던중 불시의 사고로 혼수상태로 빠져있다 죽은 아들, 그아들을 시아버지가 간호하고 돌보는 몇달동안 며느리는 550 만불 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시아버지 모르게 챙기고는 이미 전부터 만나던 남자와 아이를 낳고 살고, 금쪽같이 귀하게 여기는 존주마저 못보게 법적으로 꼼짝 못하게 시아버지를 만들어놓은 그 상황이 분하고 분해 다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는 생각으로만 살게 되었다며 하소연하는 70 이 넘으신 할아버님의 인생의 스토리는 기가 막혔다. 또다른 이야기는 주위에서 순하고 순하다는 평판을 듣고 있던 좋은 남편,좋은 아빠로 살던중 도박과 함께 바람이난 아내에게 돌이키기를 기다리며 집안살림과 사업확장 그리고 아들과 딸을 챙기며 살림까지 도맡아하며 노력하던중 너무나 뻔뻔하게 나가는 아내의 막말과 막된행동에 엉겁결에 집어던진 것에 맞아 피가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오히려 아내를 계획살해하려고한 혐의로 뒤집어 씌움을 당해 미국이라는 풍토도 언어도 익수하지 않은곳에서 비정한 아버지, 남편으로 신세가 바뀌어 비참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치루어야하는 30 대후반의 남자재소자의 기가 막힌 옥살이 사연의 시작이 나를 상실케한다. 정말 이런 현실이 존재하는 세상속에서 살아간다는게 비감스럽다. 또다른 경우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죄로 붙잡혀 사춘기가 막지난 청년이 되어 수감생활을 시작해 지금 37 세가

되었다. 몸도 성치 않은 이 어머니는 혼자의 몸으로 옥바라지를 해오며 오히려 세상을 원망하기 보다는 그 아들에게 바른 마음과 정신으로 살게 하고픈 바람으로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돌보며 자신의 마음또한 다스리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어머니와 그아들을 나는 종종 자주 만난다. 비단 이것뿐아니다 , 한사람, 한사람의 이야기가 숨이 턱에 차오르는듯한 그런 아픔을 가진 인생들이다. 내가 듣고 감당할수있는 이야기들이 도저히 아니기에 이런 인생들을 만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는 늘 구하며 살아야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삶인것 같다. 내가 그들에게 명쾌하게 단번에 해답과 해결을 줄수있는 문제들이 더더구나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그들에게 나의 귀를 귀울여주고 그들의 눈물에 내아픈 진실한 마음과 눈물로 반응해주고 그리고 내가 해줄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함께 해주며 잠시 내 어깨를 빌려줄수 있는것 뿐이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해줄뿐이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로 힘과 용기를 얻는 그들을 볼때 나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런삶을 주심에 감사할뿐이다. 바로 이 “억수로 드센 팔자”일수도 있는 이 삶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쁠수 있는것은 바로 내게 이땅에 말구유의 아기 예수님 으로 우리의 왕이 오셨기 때문인것이다.